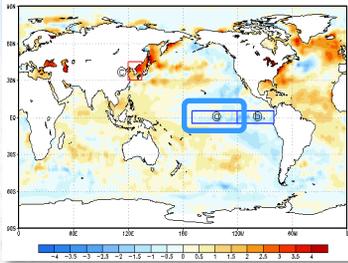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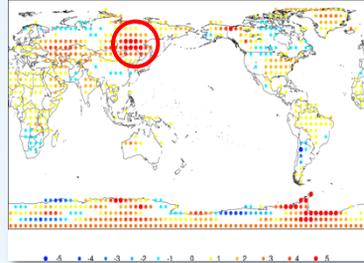
Newsletter

이상기후 감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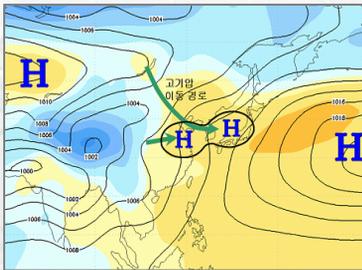
June 2010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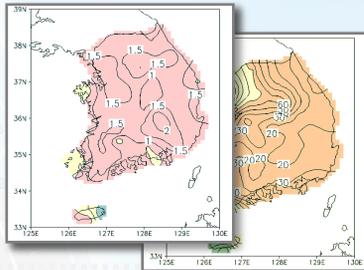
최근 엘니뇨감시구역(Niño 3.4)의 해수면온도는?
26.9°C
(평년대비 -0.6°C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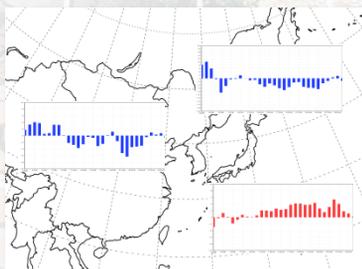
6월 세계평균기온
우리나라 북부에 위치한 연해주 부근의 기온이 평년에 비해 높아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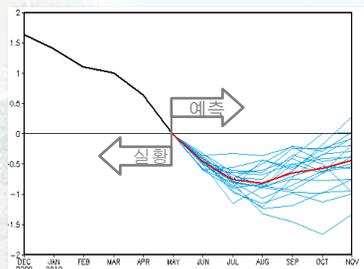
6월 기압계, 기온, 강수량 현황
- 평균 최고기온 최고 1위 (고온)
- 평균 강수량 최저 3위 (건조)



6월 고온·건조!! 그 원인은?
- 고온건조공기유입
- 수증기유입차단



우리나라 주변의 고기압 강도 변화
- 오호츠크해 및 시베리아고기압 점차 약화
+ 북태평양고기압 점차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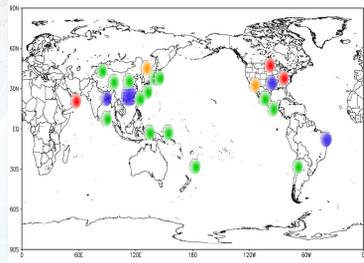


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 전망
음의 편차를 보인 후 8월부터 점차 회복될 듯..

	기온	강수량	
7월	중순	+	=
	하순	=	+
8월	상순	+	=
	중하순	=	+
9월	+	=	

= 비슷 / + 높음·많음 / - 낮음·적음

1·3개월 전망
기온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겠으나, 일시적 고온현상이 있겠고, 강수량은 7월과 8월에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..



6월 세계 기상재해
중국 남부, 기록적 강수로 홍수 및 산사태 발생하여 500여명 사망. 사이클론으로 16명, 토네이도로 10명 사망 등.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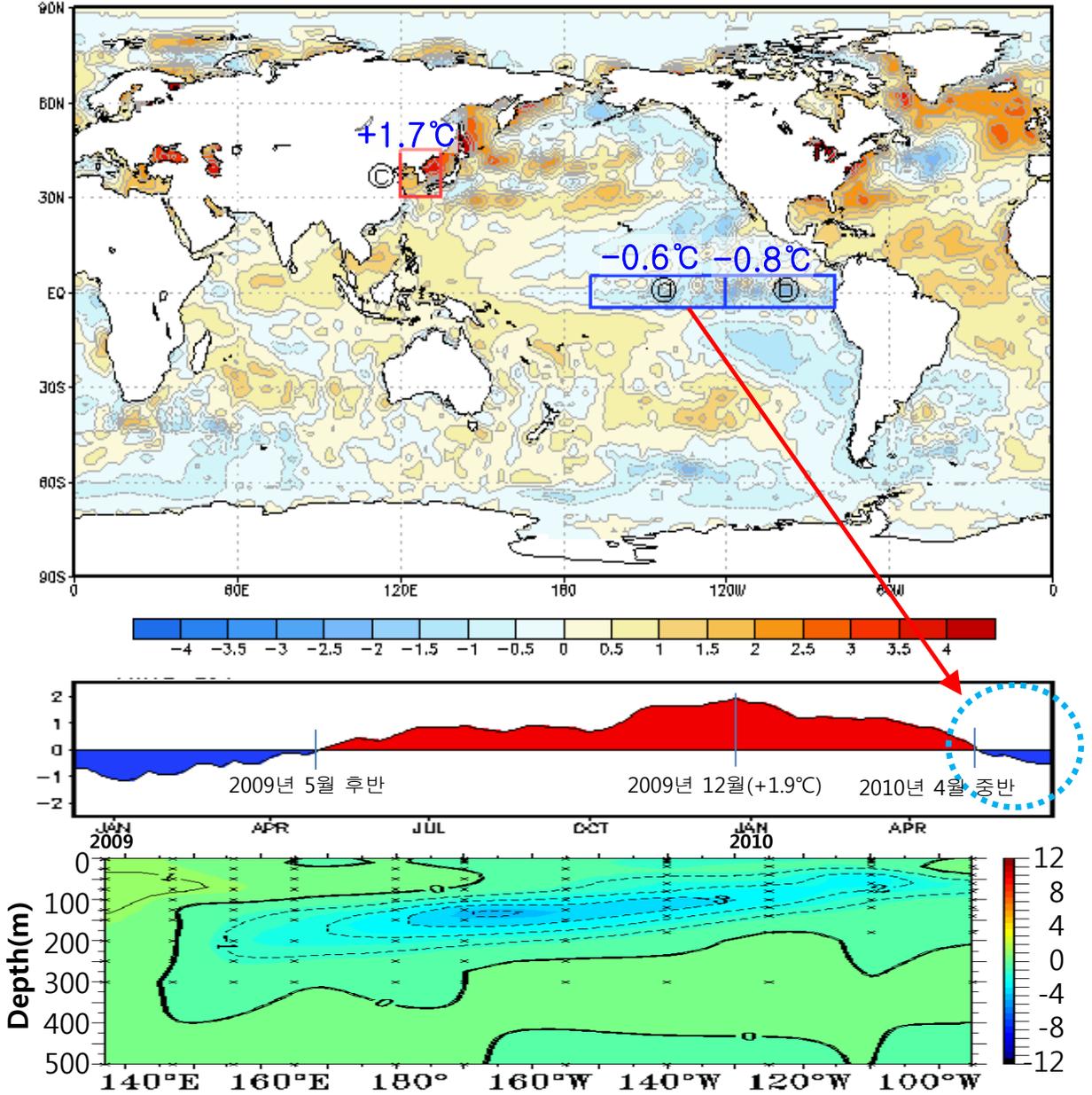




전지구 해수면 온도 현황

전지구 해수면온도 및 해저수온 편차 (6월 20일~6월 26일)

- ① 엘니뇨 감시구역(Niño 3.4) : 5°S~5°N, 170°W ~120°W
- ② 5°S~5°N, 120°W~80°W, ③ 30°N~45°N, 120°E~135°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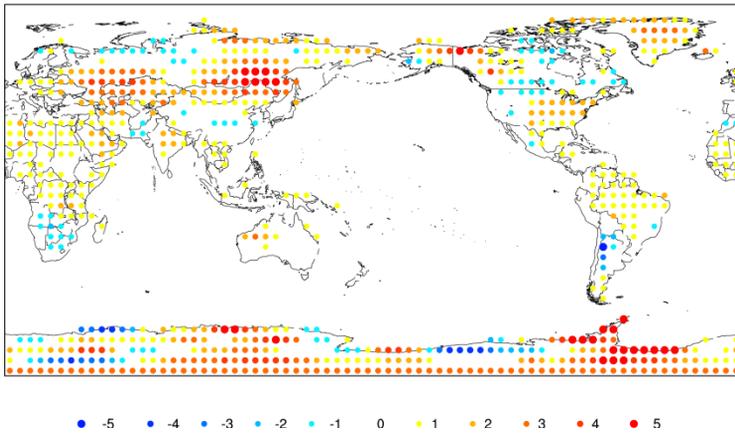
최근 엘니뇨 감시구역(①)의 평균 해수면온도는 평년보다 0.6도 낮은 26.9 °C로, 2009년 5월 넷째 주 이후 평년보다 높은 고수온 상태(지난 12월 최고 +1.9 °C)를 유지하다가, 2010년 1월부터 낮아져 4월 둘째 주부터 점차 음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. 해저 수온 편차는 서태평양에서 중태평양까지 평년보다 약 0.5~3.0°C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.



세계의 기후 : 기온 및 강수량 현황

▶ 기온 편차(°C)

[units:°C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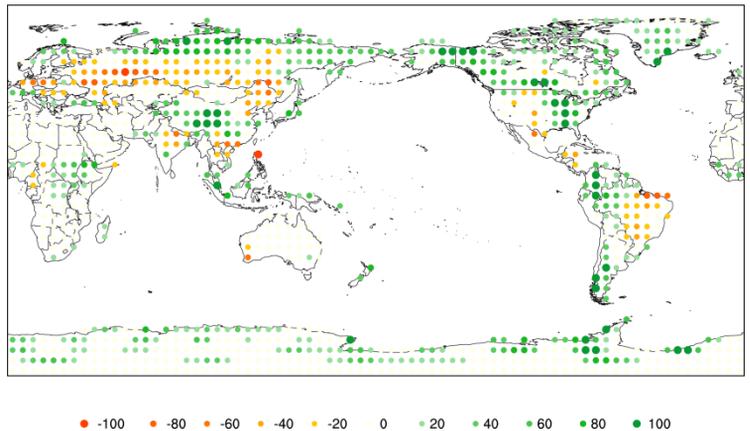


6월 평균 기온은 몽골동북부지역 및 우랄산맥 남동쪽지역에서 평년(1971~2000년)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, 캐나다 동부, 남아메리카의 칠레 및 아르헨티나, 남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분포를 보였다.

▶ 강수량 편차(mm)

[units:mm]

6월 강수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 중위도 대부분 지역과 브라질 및 북아메리카 서쪽지역에서 평년(1971~2000년)보다 적었으며, 중국 및 남아메리카 서쪽, 캐나다를 포함한 북반구 고위도 지역에서 평년보다 많았다.



▶ 월별 전지구 기온 편차 및 순위 (2009~2010년)

(°C)

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	2월	3월	4월	5월	기준
편차	+0.62	+0.57	+0.62	+0.62	+0.57	+0.60	+0.49	+0.60	+0.60	+0.77	+0.76	+0.69	1901~2000
순위	2	5	2	2	6	4	8	4	6	1	1	1	1880~

2010년 3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월평균기온이 최고 1위를 기록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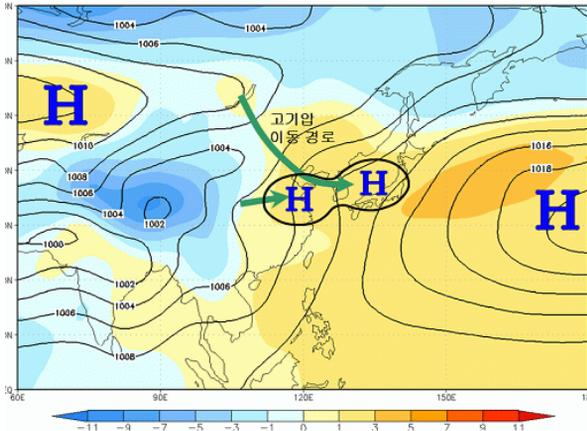
※ 본 자료는 NOAA 에서 제공하는 자료로, 익월 20일 경에 값이 산출되므로, 6월값은 7월 20일 경 발표됨.

※ 편차는 1901년부터 2000까지의 100년간의 평균 자료를 기준으로,

순위는 1880년부터 131년간의 자료를 기준으로 이용하여 산출하였음.



▶ 기압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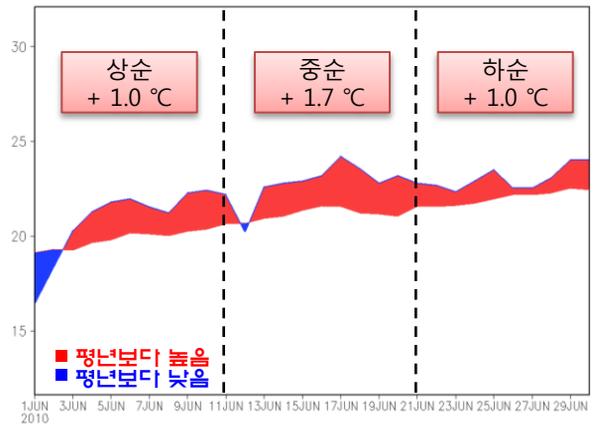
※ 6월 평균 해면기압(실선) 및 해면기압편차(음영)
 (붉은색:고기압 강화/저기압 약화 푸른색:저기압강화/고기압약화 의미)

중국으로부터 이동해 온 건조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동서고압대를 형성하면서 강한 일사의 영향으로 지면을 가열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맑고, 건조한 날이 많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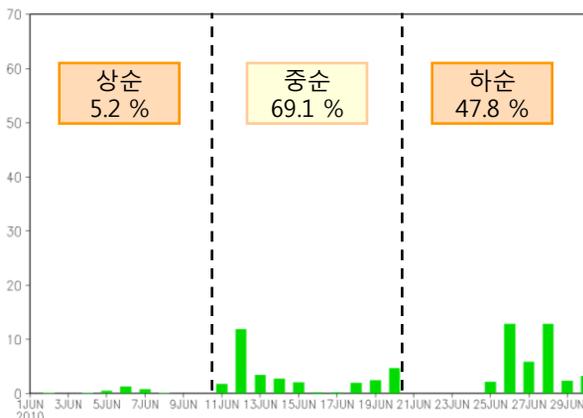
▶ 기온 (°C)

전국의 6월 평균기온은 22.2°C로 평년(1971~2000년)보다 1.2°C 높아 1973년 이래 2번째로 높았다.

평균 최고기온은 27.8 °C로 평년보다 1.7°C 높아 1973년 이래 가장 높았으며, 최저기온은 17.4°C로 0.9 °C 높았다.



▶ 강수량(mm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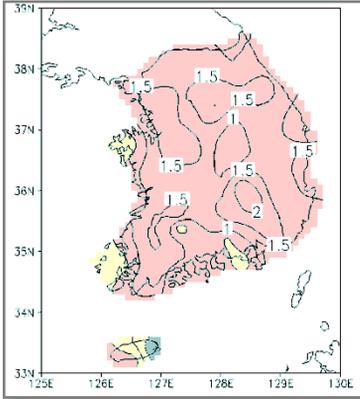
전국 평균 6월 강수량은 71.7mm(평년 대비 41.9%)로 1973년 이래 최저 3위를 기록하였다.

강수일수는 9.4일로 평년보다 1일 적었으나, 일조시간은 197시간으로 평년보다 12.5시간 길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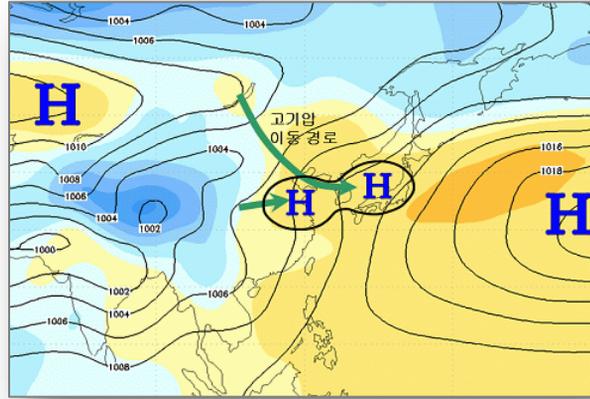


6월의 기상특징

▶ 6월, 전국 평균 최고기온 1973년 이래 가장 높아



평균기온 평년편차도(°C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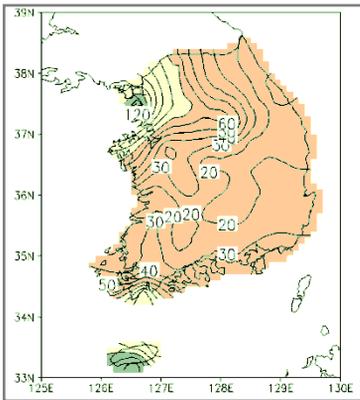


해면기압(실선) 및 평년편차도(음영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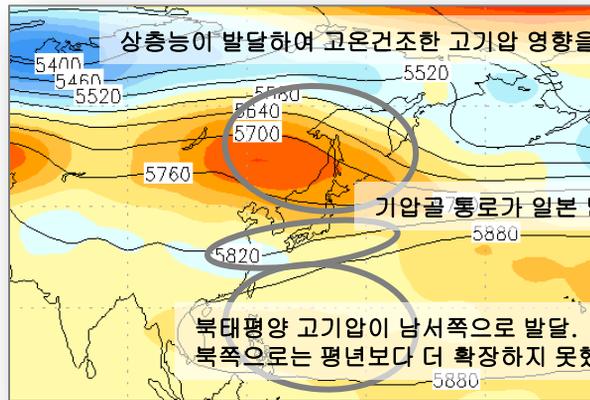
중국으로부터 이동해 온 건조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 주변에서 동서고압대를 형성하면서 우리나라는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았다.

건조한 공기가 낮 동안 일사에 의해 급격히 가열되면서 최고기온이 30°C가 넘는 고온이 자주 발생하였다.

▶ 6월, 전국 평균강수량 1973년 이래 3번째로 적어



평균강수량 평년비(m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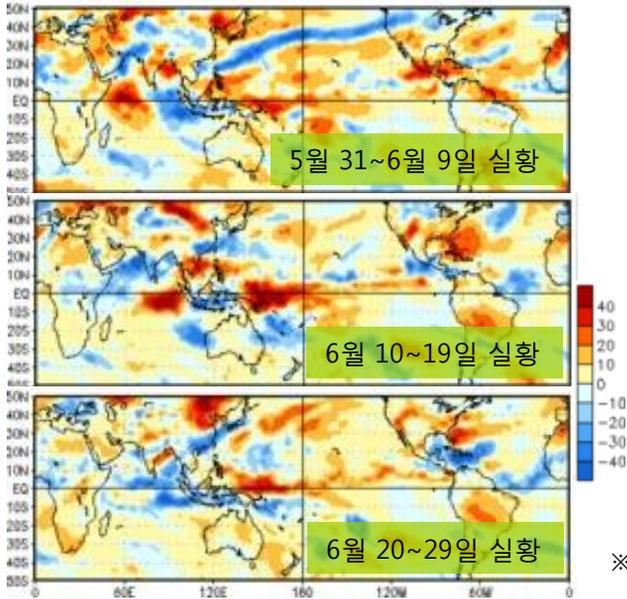


500hPa 고도(실선)와 평년편차도(음영)

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 남서쪽으로 발달하면서 장마전선이 일본 남쪽해상에 형성되어 수증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였다. 태풍 발생지역에서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 발생이 억제되어 태풍에 의한 수증기의 북쪽수송 현상이 없었다.



▶ OLR(Outgoing Longwave Radiation)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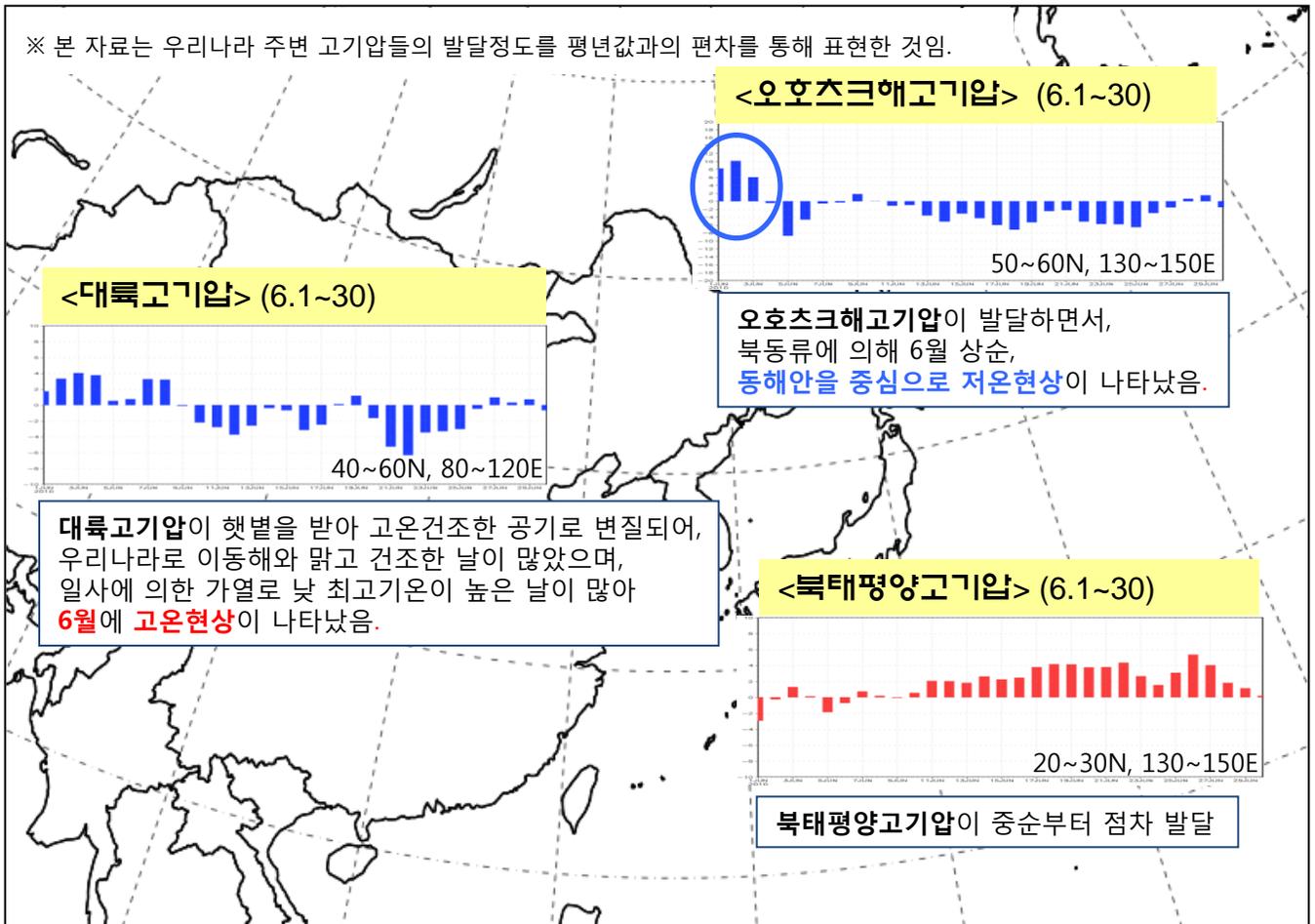


인도 및 뱅골만의 OLR은 6월 중순에 음의 편차를 보여 인도몬순이 활발함을 보이다가, 하순에 평년수준을 되찾으며 대류활동이 진정되는 경향을 보였다. 한편, 태풍 발달구역인 필리핀동부의 OLR은 양의편차로 태풍발달을 억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, 하순부터 약한 음의 OLR 구역이 나타나고 있어 대류활동이 점차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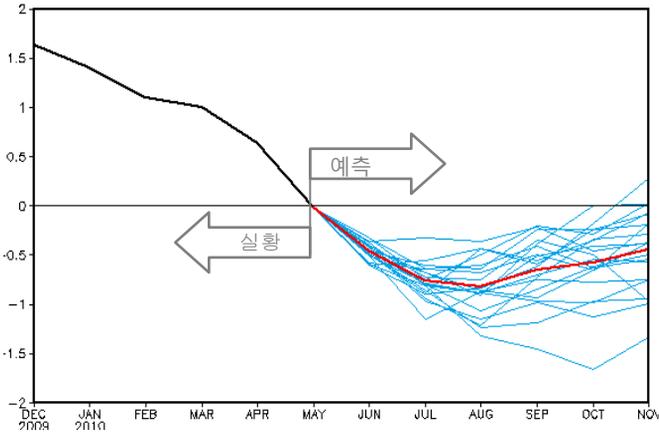
※ 음의 편차(파란색)가 강할 수록 대류가 활발함

▶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친 고기압과 한반도 날씨 현황

※ 본 자료는 우리나라 주변 고기압들의 발달정도를 평년값과의 편차를 통해 표현한 것임.



▶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 변화 전망 (6~11월)



열대 태평양 해수면온도의 변화 경향과 기상청의 엘니뇨 예측 모델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, 올 여름철 동안에 해수면온도 편차가 0.5°C 이하의 낮은 편차를 보이다가 8월부터 점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.

※ 검은색 : 관측값 / 파란색 : 20개 앙상블 멤버 예측값 / 빨간색 : 앙상블 평균

※ 앙상블 : 모델의 초기상태에 편차를 주어 여러 개의 개별적 수치예보를 실시한 후 그 평균을 구하는 방법

▶ 1개월 전망 : 7월 중 · 하순, 8월 상순

- ◆ 기온 : 평년(20~27°C)보다 높겠음.
7월 중순과 8월 상순에는 평년보다 높겠으며, 7월 하순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음.
- ◆ 강수량 : 평년(155~354mm)과 비슷하겠으나,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겠음.
7월 중순과 8월 상순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며, 7월 하순에는 평년보다 많겠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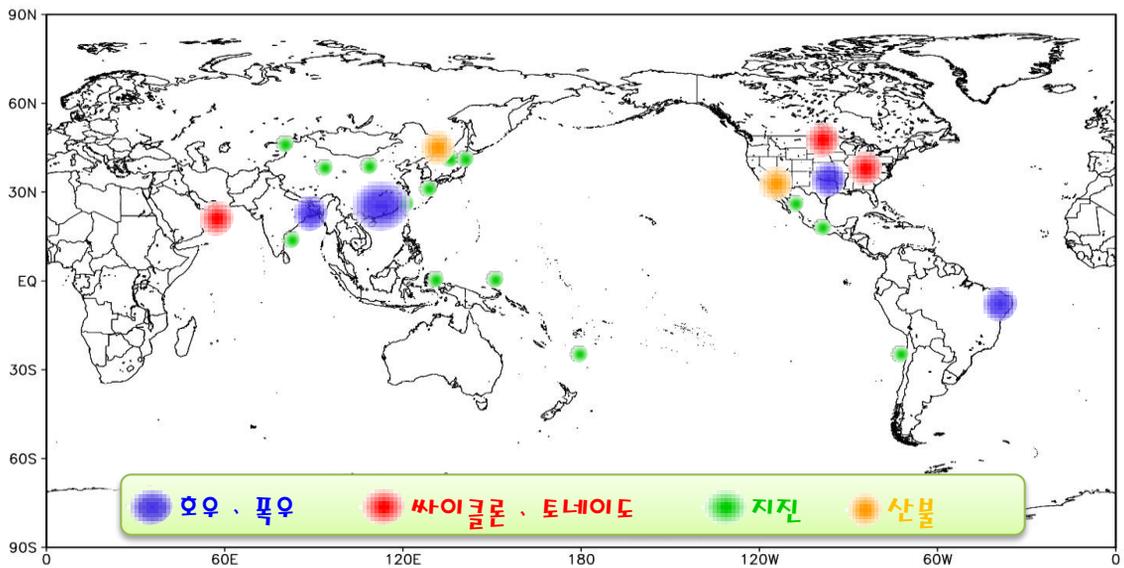
▶ 3개월 전망 : 7~9월

- ◆ 기온 : 평년(17~25°C)과 비슷하겠으나,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음.
7월과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으며, 9월에는 평년보다 높겠음.
- ◆ 강수량 : 평년(497~911mm)보다 많겠으며,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오겠음.
7월과 8월에는 평년보다 많겠으며, 9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음.

※ 1·3개월 전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[기상청 홈페이지\(www.kma.go.kr\)](http://www.kma.go.kr) > [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](#)



세계 기상재해



호우

- 1~3일 : 중국 남부 폭우로 산사태 발생하여 53명 사망, 20만명 이재민 발생
- 11일 : 미국 아칸소주 캠프장, 한밤중 폭우로 강 범람하여 최소 18명 사망
- 15일 : 방글라데시 폭우로 대형산사태 발생하여 최소한 58명 사망
- 13~26일 : 중국 남부지역 폭우로 인한 홍수발생. 최소 381명 사망, 143명 실종, 7천 만명의 이재민 발생, 재산 피해액은 838억 위안(14조 8천 300억 원)
- 17~21일 : 브라질 북동부 폭우로 홍수발생, 최소 46명 사망
- 28일 : 중국 남부 구이저우 마을 산사태로 107명 매몰

사이클론 토네이도

- 3~4일 : 폭우와 시속 150km의 강풍을 동반한 사이클론 '페트(Phet)' 오만 남동부 지역 강타하여 16명 숨지고, 2명 실종
- 6일 :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토네이도로 7명 사망
- 17일 :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토네이도로 3명 사망

지진

- 12일 : 인도양 니코바르제도 규모 7.5강진. 쓰나미 경보내렸으나 피해없이 해제
- 16일 : 인도네시아, 파푸아 북부연안 규모 7.0 강진으로 2명 사망
- 15일 캘리포니아 남부(규모 5.7), 23일 캐나다 온타리오(규모 5.0)
- 26일 솔로몬 제도(규모 6.7), 30일 멕시코 오악사카주(규모 6.2)

산불

- 20일 : 미국 중서부 애리조나주 산불로 수백명 대피
- 26~1일 : 중국 헤이룽장성 대형산불 23곳 발생. 불별더위로 저수지 물도 말라

이상기후 감시 Newsletter

편집 : 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예측과

Tel : 02-2181-0478

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기상청길 45(우156-720)

Fax : 02-2181-0489

기상청 웹진 '이상기후 감시 Newsletter'를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후예측과 E-mail(clpre@korea.kr)로 구독자 성명과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